

'99 숭실대 숭대극회 제23회 신입생 환영공연

그
자
매
에
게
무
술
이
있
어
났
다

리투아니아



연출/권내리 기획/홍신택

일시/1999년 6월 3~5일(평일 오후 6시, 토요일 1시, 5시)

장소/숭실대학교 제1공학관 3층 대학극장

주최/숭실대학교 숭대극회

도와주신 분들

큐피드

분위기. 99새내기에게 땡!
먹거리. 숭실대에서 최고!

812-4360

아네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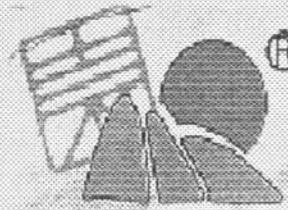
815-8694

삼영당구장

825-8595

회전식

숯불고기 먹고 싶은 대로



푸드원®

숭실대점 822-5891

모시는 글

‘99
숭
실
대
중
대
극
회
신
입
생
환
영
공



99년도 21c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시기에 온 신입생..

어리버리한 98.. 내 동기들.. 연출, 기획, 스텝...

그리고, 여러 선배님들이 있기에 우리는 또 하나의 공연을 올린다.

약 두 달 간의 노력과 땀들이 하나의 결정을 이루어..

여러번의 작업들.. 그러면서 생기는 힘든 일들..

이외 많은 시련과 아픔을 사랑으로 극복한다.

결국 난 모든 것을 사랑하기로 했다.

연극을..

그리도 나와 같이 항해하는 이들을..

또한 숭대극회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신입생 환영 공연에 오신 관극님들!

극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들의 작은 모습까지 지켜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결정체를 꼭 지니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극회장 강대인(산공 98)

연 출 의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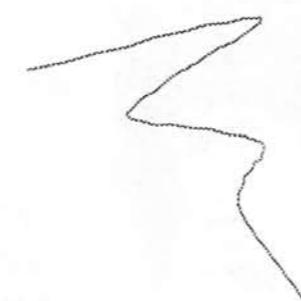
‘99
승
실
대
승
대
극
회
신
입
생
환
영
공
연

시간이 지루함을 낳고, 사랑이 마음을 낳고,
술이 한숨을 낳고, 낳고 또 낳다가
어느날 불쑥 연극이란 놈을 낳아버렸다.

버릴수도 없고, 도로 먹어버릴 수도 없어
극장 한구석에 던져놓았더니
까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땀과 소리와 시간을 먹고
어느새 제 발로 일어설만큼 자라버렸다.

이젠 투정까지 부려댄다.
관객을 만나고 싶다고
어떻하나...
조금은 걱정스럽지만
극장문을 활짝 열어두려 한다.
아직 조그맣고 어설프지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받기를 바라며
조금은 그들을 만나며 즐거워하고 행복해지길 바라며...

연 출 권내리(불문 95)



CAST



가끔은 슬픈 얼굴이라도
좋다. 맑은 하늘아래라면
가슴의 따스함만으로도
전해질 수 있다. 진실은

제인 / 김이정(인문 99)



망각은 저주다.
아니다 축복일련지도 모른다.

블렌치 / 이경우(인문 99)



날 놓아줘!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에드원 / 강대인(산공 98)



난 작품을 위해 나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잊어버린 시간보다
큰 무언가가
내안에 생기기를 바랄 뿐이다.

바바라 / 이경미(환경화학 99)



벼를 나뭇잎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따사롭고 싶다.

아버지 / 구본혁(인문 99)



새는 뒤돌아 보지 않는다.
뒤돌아 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이다.
난 새이고 싶다.

어머니 / 이혜진(경통 99)



기다림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고통이란다. 그런 거 같다.
^^ 나 이제 일어날때가
된거 아닐까?

풀 / 백종혜(국문 98)



연극은 거짓말이다.
난 거짓말쟁이다.

신사 / 김종백(경통 99)



술집주인의 말
경고 : 톰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 건강에
해롭습니다.

술집주인/최연경(전자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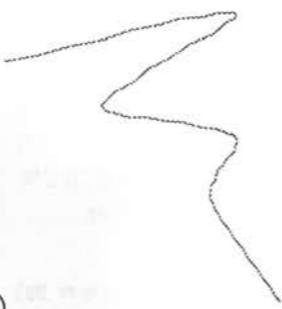
‘99
승
실
대
승
대
극
회
신
입
생
환
영
공
연



기획 홍신택(경통 98)

기획의 변

공연 연습 기간 두달…
매우 많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동안 매우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 나지 않는다.
재미있었다.
색다른 경험이었다.
내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엉망이었는지는
내겐 중요하지 않다.
단지 공연을 준비했다는 것만으로
나는 기쁘다.
만약 우리가 멋진 공연을 올리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한다.



무대감독 / 조태희(설우 92) 무대미술 / 류성환(건축 93) 무대미술 / 양명호(법학 93) 무대장치 / 이정원(국문 93)



무대장치 / 박정극(법학 93) 홍보 / 박시현(법학 94) 의상 / 신하영(건축 95) 의상 / 박지희(정외 95)



일러스트 / 이경희(컴퓨터 96) 스토리 / 노은혜(사사 96) 배경 / 서정훈(국문 96) 전행 / 양진(일본어 96)



조명 / 이정미(설우 95) 음향 / 박영신(국문 96)

STAFF

To: 99 중실대승대극회신입생환영공연

Subject: 99 중실대승대극회신입생환영공연

From: 99 중실대승대극회신입생환영공연

작 품 읽 기

I. 『그 자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는 여배우인 두 자매의 노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반신 불구가 되어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언니 블랜춰. 아역배우로 유명했지만 성장해선 언니의 그늘에 가려지고 평생을 언니를 불구로 만든 죄책감에 묶여 사는 제인. 자매는 여전히 과거 화려했던 배우시절의 환상에 묶여 있다. 제인은 다시 데뷔하기 위해 언니 몰래 작곡가를 고용하지만 우발적인 살인과 언니의 고백으로 정신이 붕괴되고 자신의 환상의 세계로 도망친다.

두 자매는 과거시절의 환상과 집이라는 공간에 갇힌 채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기나긴 시간동안의 고립은 두 자매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질투와 묵은 상처들을 쌓아가게 만든다. 자매간의 갈등은 함께 사는 가족이면서도 서로 질투하고 다투 수밖에 없는 배우로서의 자존심과 폐쇄된 공간에서 살아가며 가깝기 때문에 부딪치게 되는 혈연간의 기묘한 거리에서 시작된다.

II. 『리투아니아』는 외파로 떨어진 한 집에 손님이 찾아오며 시작된다. 손님은 과거 이 집에서 가출한 아들로 도시에서 성공하여 가족에게로 돌아온다. 그는 사실을 숨긴채 손님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부를 자랑한다. 다른 식구들을 물질적 빈곤과 생활고에 시달려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도시에서 온 손님은 그들의 이런 욕망을 부채질하고 극단적인 살인이라는 수단을 택하게 된다. 가족들은 현실에 짙기는 인물들이다. 그들의 비극을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지른 살인이 결국 혈육을 죽이게 된 사실과 끊을 수 없는 부모와 자식간의 인연의 끈에서 비롯된다.

III. 두 작품의 연결고리는 혈연으로 잡았다. 끊을 수 없는 혈연이라는 끈 때문에 서로 부딪치다가 결국 서로를 파괴시키는 자매, 현실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혈육을 죽인 고통을 겪게되는 가족. 때로는 혈연이라는 건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서로에게 더한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평생 인연을 끊을 수 없는 기묘한 관계를 만들기도 한다. 인간관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다툼과 갈등이 혈연관계에서는 더 크게 증폭되어 낯선 타인에게보다 더 큰 아픔을 남기기도 하고 평생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인해 상처가 되기도 한다.

선 배 님께 올 리 는 글

To. 승대극회 언배님들께

여기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긴 세월동안 때로는 싱그럽고 무성하게 나뭇잎을 피우며 때로는 가지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으며 때로는 외부적인 고통에 병들기도 하면서 세월의 시간만큼 자라왔습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맹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세월동안 자라온 나무키만 볼 뿐 보이지 않는 흙속에서 생사고락을 겪이하며 자라온 뿌리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무가 자랄땐 나무의 키만큼이나 그 뿌리도 같이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나무가 단단하게 서 있으면 뿌리는 더 깊이 더 깊이 흙속으로 파묻혀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하고 의아해 하실분들도 계시겠죠? 그 나무라는 것은 승대극회입니다. 1965년 이반언배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묘목으로 시작해서 이 나무는 해마다 꽂습니까 자라나 이제는 1999년 새내기가 꽂았던 가지를 뻗으려고 하는 이순간에도 우리는 승대극회라는 나무가 단단히 서있게끔 반짝푸신 뿌리 꼭 언배님들을 잊고 살아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실을 잊고 그저 우린 잘 자라나고 있어하며 스스로 어 있는줄로만 알고 자만했던 우리의 모습에 반성하며 언배님들과의 좀더 많은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승대극회는 가족이고 이 가족들은 지혜와 같아서 뿌리가 뚝으면 눈에 보이는 나무도 쓰러진다는 사실을 잊지않고 앞으로 살아갈것입니다.

From.승대극회 째학생 일동

‘99

99학 번 신 입 생 모 집

연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 배우들이 쏟아내는 땀과 열정. 한번쯤 겪어보고 싶은 꿈같은 이야기들. 진한 인생 이야기들… 사람들 내부의 꿈과 열정을 끌어내는 이런 모습들. 연극을 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은 것이 승대극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말고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전화:820-0958, 위치:승실대학교 제1공학관 2층 승대극회실

